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70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법을 최초로 터득하다

10절: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사만 사천의 의인
-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 5) 밀실에 입문하다
-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 8) 죄의 정체,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 9) 내가 이겼나오, 하나님이 나를 이겼나이다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지난호에 이어서)

최초로 인간 구원의 희망을 가져다주는 올바른 기도법을 찾아내다

평소 나름대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한다는 축에 든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새삼스레 기도를 하라고 하시니, 명령을 받은 당일은 다른 날보다 더 열심히 밤늦게 까지 기도를 하고 잤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해와 이긴자께서 "조사장,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를 안 해!" 하고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이제 밤잠을 아예 자지 아니하고 날이 꼬박 새도록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이긴자께서 경중 뛰어서 "기도를 하나도 안 했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이렇게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자꾸 기도를 안했다고 하십니까?' 하고 생각하면서 도무조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 날을 계속해서 철야기도를 해왔지만 매번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한 번은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이젠 도저히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내 대신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일찍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날 해와 이긴자가 "어, 오늘은 기도를 조금 했구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일곱째 천사는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로구나!' 하고 바로 이것 이로우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서는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게 전부 다 헛것이로구나!

내!하는 걸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마지막 때에 비로소 믿음이 나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눅 18:8).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해주시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드(mode)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부터 일곱째 천사의 마음이 바뀌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천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현재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또 다른 성경구절로 '나를 항상 버려라'고 한 것도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罪)기에 버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죄를 짓지 않는 비결'

이쯤해서 일곱째 천사는 성경에도 없는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을 찾아낸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는 죄를 짓기에 죽음이 이룬다고 했는데, 이는 뒤집어서 보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나와 지금까지 온전히 못한 성경을 온전케 한다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라는 성경말씀을 비추어보더라도 성경에서 '영생을 빼면 읽어볼 가치도 없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66권 속에 영생하는 비결 곧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성경 기자들에게 성경의 감동을 일으키게 했던 장본인 하나님조차도 죄(罪)가 되는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전(前) 역사에서 '핏속에 죄가 있다'는 말씀을 다섯째 인을 때는 영모님께서 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죄를 지으면 피가 더러워져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이



조화성님이 밀실에서 산을 개간하여 밭으로 일구는 일을 했는데, 위의 사진은 그 당시 오함마로 바위 같은 돌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기절까지 한 장소

말씀보다 더 고차원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모님을 따르던 전도관 식구들은 피가 더러워지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무던히 노력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영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영생하지 못한 이유는, 미완성의 하나님 신을 모신 영모님께서 피를 더럽히는 죄의 정체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일곱째 인을 때는 일곱째 천사는 피를 더럽히는 죄의 정체가 곧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것을 깨낸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구절을 말씀에 이루는 구세주께서 죄론(罪論)을 논하실 때마다 필히 인용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에서 욕심이 죄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욕심을 부리는 주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받는 심령상태의 단계까지 올라간 일곱째 천사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는 성경구절을 떠올리자마자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욕심을 부리고요 욕심이 죄라면 나라는 주체의식은 욕심의 뿌리가 되는 원죄(原罪) 선악과(善惡果) 로구나!' 하고 마침내 죄의 근본을 파악한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뿌리에서 욕심이라는 나무줄기가 올라오고 그 욕심이라는 줄기에서 죄라는 가지를 뻗게 되고 마침내 죄라는 가지에

서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뿌리를 제거하면 욕심이 나올 수 없게 되고, 욕심이 안 나오니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안 지으니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 없는 생활이 가능한 가운데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罪)라는 사실을 깨닫다

한편 일곱째 천사가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는데,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 중에 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기에 나를 미워하고 짓이기는 반대생활로 철저히 일관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로마서에 '죄가 마귀 중'이라는 구절을 떠올리면서 '옳지, 마귀 중이 마귀 새끼라는 뜻이요, 마귀 새끼가 마귀이니라 죄가 마귀 중이라 성경말씀은 죄가 곧 마귀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라면 이를 죄가 마귀라는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원죄가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곧 마귀라는 답이 똑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일곱째 천사에 의해서 마귀의 비밀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죄다.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죄다. 내가 고아원에 싹 백가마를 갖다 주어도 죄다." 이렇게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영육간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철천지원수다. 나라는 것이 육천년 조상의 핏줄을 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귀의 노예 노릇만 하였다." 이렇게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

귀라는 것을 안 이후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면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찰거머리 같은 마귀를 궤멸시킬 수 있을꼬?' 하고 이런저런 방도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미워해 주는 사람 있다는 것은 나라는 마귀를 협공해서 죽이는 꼴이니 통쾌하고 고소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마귀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나를 찬대멸시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는 오히려 범죄를 할 수 없었는데, 반대로 나를 칭찬하고 대우를 해줄 때는 자존심 교만 마귀가 꿈틀거리면서 범죄하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반대생활의 도(道)를 지켜 나가는 가운데, 식사시간에도 내가 맛있는 음식에 젓가락이 저절로 가면 순간 멈추고 반대로 슴바귀와 같은 맛있는 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잠이 오면 자지 않고 잠이 안 올 때 잠을 잤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힘들어 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오히려 쉬지 않고 나를 짓어 죽이는 심정으로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산(山)을 개간하여 밭(田)으로 일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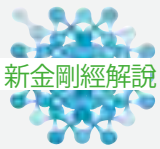
격양유록에 삼위일체(山) 하나님이 발전(田)자의 이치로 강림하신다는 예언대로 일곱째 천사는 밀실에서 누가 산을 개간하라고 시켜서 개간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산을 개간하여 밭으로 일구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바위 같은 돌은 오함마로 깨뜨려야 했습니다. 대개 철분이 들어있는 돌인지라 아무리 오함마로 내려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힘껏 내리

치는 팔만 몫이 결리고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오함마로 바위를 200대 정도 때리니까 그제야 바위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00대, 400대 치니까 그때부터 바위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바위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어디 해보자!' 하고서 계속해서 가루가 될 때까지 치게 되니, 결국은 너무 힘이 들고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홀로 개간하였기에 기절을 하여도 누군가 깨워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 기절한 채로 죽는다면 아무도 모른 채 산 속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이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누워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절한 지 두 시간 만인가 세 시간 만에 깨어나서 일어나보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에 하얗게 소금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군대에서 11년간 장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장교복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위를 깨다가 기절했던 상태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데 연이어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이리다간 잘못 될지 모르니까 쉬었다가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안 쉬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나서 그냥 오함마를 들고 바위를 부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기진맥진 상태에서 쓰러지면 죽을 염려가 있으나, 만약에 구세주 후보자가 죽는다면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도 끝장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잘 아시는 까닭에, 일곱째 천사에게 강한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밭을 개간하는 것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밀실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방 앞에 있는 자갈이 많은 땅을 밭으로 개간하였는데, 이를 바라보는 해와 이긴자의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 거기에서 같이 연단 받는 청년들이 볼 때에는 '특별나게 군다. 너무 흔자 잘난척 한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다음호에 계속)* 백한수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47>

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第二十三

罪無自性從心起 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是罪亦忘 罪忘心滅兩俱空
심약멸시죄역망 죄망심멸양공
是即名爲眞懺悔 시즉명위진참회

자성(自性=本性=佛性)에는 죄가 없으나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만약 마음을 멸해 버리면 이 죄 또한 사라지는데, 죄가 사라지고 마음도 없어진다면 양쪽이 공함을 지은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참다운 뉘우침이라고 한다.

[해석] 이와 같이 천수경을 살펴보니 죄에 대한 말씀이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이러한 죄, 바로 욕심과 화냄 그리고 여러악함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욕심은 누가 부릴까요?

남이 욕심을 부릴까요? 내가 부릴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 즉, 마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마음이 죄를 만들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죄가 점점 더 커지니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증일아함경과 능엄경, 열반경 등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석존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었으나 이러한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으니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이런 마음으로 결국 사람들이 죽어 나갔기에 석존은 모든 경전에서도 무아(無我)의 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며,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몇천 년간 장시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바로 이런 답을 몰랐고, 또 답을 알았다 해도 어떻게 수행을 하

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실패한 부처님이 되어 결국 사자마귀(死魔)에 잡혀서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남을 때린다고 하는 것들을 죄라고 하였으므로 죄의 근본 소재를 몰랐습니다.

죄의 근본을 몰랐으니 죄를 벗을 수도 없었으며, 불도를 이룬다고 함은 죄의 근본을 알아서 죄가 뭘지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야 죄를 벗을 수 있는지를 아무도 논(論)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감탄한 어둠 속을 헤맨 말 그대로 무명의 세상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석존도 죄의 소재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는 알고 있었으나 죄에 대한 정확한 소재를 몰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범부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불교의 근본 교리라고 하

는 것 중에 한 가지인 사성제(四聖諦)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별써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성제가 불교의 근본 교리라고 가르친 석존이나 지금의 불교에서 두 가지의 사성제가 있다고 한다면 불교 자체가 심각한 교리의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성제의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금강경을 보시겠습니다.

복지무비분(福智無比分) 第二十四

복덕과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

須菩提 須菩提
若三千大千世界中所有諸彌彌山王
약삼천대천세계중소유제수미산왕

如是等七寶聚 一人持用布施
여시등칠보취 유인지용보시
若人以此散若波羅蜜經乃至四句偈等
약인어이변어버리밀경내지사구게등
受持讀誦爲他人說 於前福德百分不及一
수지독승위타인설 어전복덕백분불급일
百千萬億分乃至算數譬喻所不能及
백만억분乃至算數譬喻所不能及

수보리야, 만일 삼천대천세계 가운데에 있는 수미산왕만 한 것과 같은 일곱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보시에 쓴 사람이 있더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선야비라밀경=금강경> 또는 사구계(四句偈)만이라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설명해준다면 앞에서의 복덕으로는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백, 천, 만, 억분과 내지는 (무량한) 산수의 비유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설] 삼천대천세계 즉, 태양계 내의 백억 세계에 모든 수미산같이 높은 산에 일곱 가지 보배로 가득 채운 것을 가지고 보시(布施)한 사람이라도 이 금강경의 내용을 옮겨 알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진실한 뜻을 알려준다면, 앞서 일곱 가지의 보물을 수미산만큼 보시를 한 사람보다 더 그 복과 덕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며,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보시를 해도 앞서 금강경의 사구계의 올바른 뜻을 설명해주는 사람에 비하면 또한 손톱만치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과연 이 금강경의 사구계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주는 이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모든 불자들은 이해하여야 하며, 또한 앞에서도 알려 드린 것과 같이 모든 불자들은 이 금강경에서 뜻하는 바를 아무 편견과 아집이 없이 이 금강경의 바른 뜻을 잘 알아야 하며 또한 이 경의 올바른 뜻을 해설하여 주는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明鍾